

조선의 천재 1000명 죽음으로 내몬 기축옥사 파헤치다

“천재의 특징은 보통 사람이 알아 놓은 레일에 자신의 사상을 신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소설 '적과 흑'에서 그렇게 말했다. 평범한 사람과 다른 천재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다.

당송팔대가 중 한 명인 한유는 작품 '잡설' (雜說)에서 "하루에 천 리 길을 달리는 천리마는 늘 볼 수 있지만 좋은 말을 선별해 낼 수 있는 백락(伯樂)은 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뛰어난 이는 많지만 재능을 간파해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는 드물다는 의미다.

어느 시대이고 역사의 격랑에 자신을 내던진 천재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진보했다. 16세기 조선에서도 많은 천재들이 있었다. 당시는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후퇴를 하느냐 갈림길에 놓인 중대한 시기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비들은 당파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조선의 역사 가운데 선비들이 벌인 참혹한 전쟁을 꼽으라면 아마 기축옥사를 꼽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천재들은 기축옥사를 일으켰을까? 당시 수많은 천재를 죽음에 내몰았던 기축옥사의 음모를 밝힌 책이 출간됐다. 문화사학자이자 6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신정일 작가가 펴낸 '조선의 천재들이 벌인 참혹한 전쟁'은 기축옥사의 진실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의 천재들이 벌인...

신정일 지음

조선 천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시작점에는 정여립이 있었다. 기축옥사는 1589년 기축년에 벌어진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기화로, 연루자를 색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즉 서인에 의해 동인들이 탄압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정여립에 대해 "혁신적인 사상가", "반역가"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린다.

동인과 서인을 막론하고 뛰어난 천재로 평가됐던 정여립, 서인 측의 송익필, 알성 급제를 했던 이발 그리고 정철. 이들은 당파나 서로 간 입장차가 극명해 공존하기 힘들었다. 물론 기축옥사 이전부터 당쟁은 있었지만 서로를 죽이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기축옥사를 계기로 동인과 서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한 뒤 제자들과 함께 가서 무술을 단련하던 진안의 죽도. 정여립은 죽도를 사랑해서 호를 죽도 선생이라고 지었다.

16세기 선비들 입장차 극명 당파 위해 죽음도 불사

1589년 기축년 정철 등 서인에 의해 동인들 탄압

조선을 뒤흔든 정여립에 얽힌 음모와 진실 재구성

불행하게도 기축옥사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임란이 일어났다.

정여립은 본관은 동래이고 자는 인백

(仁伯)이다. 157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으며 1583년 예조좌랑을 거쳐 이듬해 수찬(修撰)이 됐다. 초기에는 이이와

성혼의 문하에 있으면서 서인에 속했다. 그러나 이이 사후 동인에 가담해 이이를 비롯 서인의 영수 박순, 성혼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관직에서 물러난다.

정여립은 진안군 죽도에 서실을 세워 활쏘기 모임을 열었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대동계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1587년(선조 20)에는 전주부윤 남언경 요청으로 대동계를 이끌고 손죽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다. 이후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589년 황해도 관찰사 한준, 안악군수 이축, 재령군수 박충간 등이 연명해 정여립 일당이 한강이 얼 때를 틈타 도성으로 진격해 반란을 도모하려 한다고 고발한다.

관련자들이 잡혀가자 정여립은 아들 옥남과 함께 죽도로 도망했다가 관군에 포위되고 마침내 자살을 하고 만다. 이 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이는 정철 등 서인이었다. 동인인 이발, 정언신, 백유양 등이 정여립과 가깝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다.

저자는 기축옥사라는 사건을 두고 조선에서 벌어졌던 진실을 이야기한다. 책에는 선비들의 개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선조,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유성룡과 이항복, 당리를 위해 정적을 죽이는 정철 등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도 펼쳐진다.

저자는 조선을 가장 많이 분열시키고 국난에 처하게 만든 이는 선조와 인조라고 본다. 두 임금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았다면 16세기 조선사회는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다.

"신재호는 부정한 승자에 의해 반복되는 역사에 물음표를 던졌다. "승리자가 되려 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 함은 인류의 공통적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매양 기대한 바와는 달리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상상출판·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아무도 모르는 기적

김주영 지음

민초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대하소설 '객주',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작품 '홍어' 등 선 굵은 서사와 섬세한 미학을 다채롭게 펼쳐온 김주영 작가가 신작 '아무도 모르는 기적'을 펴냈다.

여든에 이르는 나이에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며 집필에 몰두하는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만난다. 소설은 비정한 어른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한 소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서사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설화와 민담이라는 전통에 근간을 두고 있다. 주인공은 산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 준호다. 아버지를 따라 장마당으로 가는 길을 나서며 난생처음 집을 떠나게 된 소년은 새로운 세상과 대면하게 된다. 그 세상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 가는 곳으로 천태만상이 펼쳐지는 곳'이다.

소년은 아버지의 손을 놓치면서 길을 잃게 되고 새로운 세상과 대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는 주위의 어른들이다. 이들은 소년의 선의를 왜곡하고 약자인 소년을 위협에 빠뜨리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라 학교는커녕 집 밖으로 나가 보지 못한 준호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어린 소년을 제물로 내세우는 데 주저함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한국 사회 단면을 돌아보게 한다.

홍정선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김주영의 '아무도 모르는 기적'에 깔려 있는 내적 진실, 이야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작품이 가져다 주는 열망은 무엇일까? 그것을 필자는 울바름 혹은 진실됨에 대한 무의식적 바람이라 말하고 싶다"고 평한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미줄바라

이호균 지음

"어느 날, 시가 빗방울처럼 툭, 떨어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동반자였고, 삶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있었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시집을 낸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지만 부끄러움도 밀려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외로움이란 창작을 발현하는 중요한 기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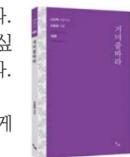
시산맥 서정시선으로 발간된 이호균 시인의 시집 '거미줄바라'는 외로움에서 깊이 울린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집에는 '손톱에 핀 꽃', '바위꽃', '골방 같은 굴', '밤 삶는 밤' 등 다양한 소재를 형상화한 70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언급한 대로 작품의 기저에 흐르는 정조는 외로움이다. 시인인 오봉옥 서울디지털대 교수에 표현대로 "지독한 외로움의 산물"이다. 오 교수는 "그가 외로움을 털어내는 방식은 그리움을 토로하거나 그 대상을 떠올려 그림을 그리듯이, 때로는 만지듯이 재창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생선살 향기 은은한 초밥 집/ 초가집 문살 같은 칸막이 벽/ 빈 공간에 안개꽃처럼/ 하얀 거미줄 피었다/ 어느 누가 집을/ 꽃처럼 지었을까/ 오, 우담바라가 피었다 했더니/ 옆에서 웃으며 하는 말/ 그림 거미줄바라네요"('거미줄바라')

표제시 '거미줄바라'는 3000년마다 한 번 피어나는 우담바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적오와 외로움이 가득하다. 풍자와 해학으로 절묘하게 전이하는 화자의 시선이 눈에 띈다.

한편 이 시인은 지난 2017년 '문학의 오늘'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KCC에 근무하고 있다.



〈시산맥·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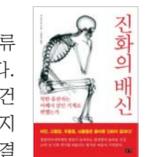
진화의 배신

리 골드먼 지음·김희정 옮김

인류의 생존은 뛰어난 뇌보다 위대한 유전자에 달려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 출현 후 20만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견디고 인류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친 것만이 아니다. 4만 년 전부터는 유일하게 생존한 호모 종의 되어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고 말 그대로 지구를 정복했다. 인간은 20만 년 동안 멸종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다. '진화의 배신'의 지인이 리 골드먼은 이 비결이 경이로울 정도로 훌륭한 유전자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조상들은 굶주림과 탈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는 질문에 지인은 유전자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진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네 가지 보호 체계 즉 유전 형질을 발달시켰다. 인간은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어 두고, 소금을 간절히 원하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는 전략을 취하고, 신속하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보호 체계를 군여왔다. 이 같은 유전 형질 덕분에 인간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사망 요인인 굶주림, 탈수, 폭력, 출혈의 위험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형질들이 최근 겨우 2세기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목숨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빼앗아 가는 주요 현대병의 원인으로 돌변해 우리의 건강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인은 인류의 생존을 도왔을 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장악하는 근원이 된 바로 그 특징들이 오늘날 치명적인 독이 되어 버린 이유를 분석한다. 그는 역사와 진화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유익한 유전자들이 어떻게 자연 선택 되고 실제로 작동해 왔는지 그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불안과 우울증,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부르는지 입증해 보인다.



〈부키·2만2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구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 에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